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마라톤 출전선수들이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제육상연맹이 인정한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인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코스를 그대로 적용했다.

마라톤 건각들 'IAAF 골드라벨 코스' 달린다

(국제육상경기연맹)

충북대표 최경선 접전 끝 여자부 **김**
 남 2시간19분30초 전북 **도**현국 우승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의 명품 코스에서 펼쳐진 전국체전 마라톤 대회에서 최경선(27·제천시청)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충북 대표로 나선 최경선은 6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끝나는 코스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

육대회 여자 마라톤에서 2시간32분26초에 42.195km 레이스를 마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경선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안솔기(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5초 앞선 1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박호선(경기도청)은 2시간36분50초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전에서는 5000m와 1만m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따냈던 최경선은 "기록은 아쉽지만, 전국체전 같은 큰 대회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꼭 따고 싶었다"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남자부에서는 전북 대표 도현국(군산시청)이 2시간19분30초로 우승했다. 김효수(나주시청)가 2시간19분41초로 2위, 박요한(제천시청)이 2시간19분46초로 3위를 차지했다.

스포츠이벤트 전문기업 스포엑스컴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올해 3월 17일 개최된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 코스를 그대로 사용했다.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정한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다. 현재 국내에서 라벨을 부여 받은 대회는 서울국제마라톤과 실버 라벨

의 대구 국제마라톤 등 2개뿐이다. IAAF는 선수들의 기록, 참가자 수, 스폰서 후원과 중계 규모, 도핑 체계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심사해 등급을 정한다. 서울국제마라톤은 2010년 처음 선정된 뒤 10년 연속 골드라벨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과 서울시,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3월 100회를 맞는 전국체육대회 서울 개최를 기념해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골드라벨' 코스인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코스를 그대로 적용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전국체전 10번째 출전 우육경 씨



올해로 전국체전 10회 출전이라는 뜻 깊은 기록을 맞이한 우육경씨가 지난해 10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고 있다. 남정현 기자

"나이? 열정은 그대로"

런던서 식당 운영하는 재외동포
 예술단 나이로 여자골프 도전장

영국 런던에서 한인식당(유미회관)을 운영 중인 우육경 씨(62)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의 단골손님이다. 4일 파파르를 올린 제100회 서울 대회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출전한 골프 종목(해외동포)은 7일 연습 라운드를 거쳐 9~10일 인천드림CC에서 진행된다.

1981년 영국으로 이주한 우 씨에게 이번 대회는 10번째 출전이다. 2008년을 시작으로 거의 빠짐없이 고국으로 향했다. 2013년 인천·2014년 제주대회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전에 나서지 않았다. 올해도 72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재영팀 일원으로 나섰다. 커리어가 독특하다. 두 개의 종목, 두 가지 직함을 오갔다. 2012년 대구와 2017년 충북대회를 골프 코치, 2016년 충남대회는 테니스 코치로 대회에 임했다.

최근 서울 방이동의 한 카페에서 스포츠 동아와 만난 우 씨는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상황에 따라 인원이 줄어들 때가 발생한다. 간혹 코치로 나서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출전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오래 전 재영팀으로 체전에 참여한 남편 허영구 씨의 권유가 있었다. 슬하의 남매에게 고국을 잊지 말자며 매년 한 번씩 찾는 한국이지만 기왕이면 좀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는 얘기를 받아들여 지금에 이르렀다.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32년째 식당일을 하는 틈틈이 연습을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하고 싶었다. 삶이 너무 고단하다보니 남 몰래 많이 울기도 했다. 남들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늘 즐거울 수 있겠나?"

실력은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지만 최대한 유지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당연히 올해의 서울 나들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

"100회 대회의 일원으로 나선다는 것처럼 특별한 수 있을까. 꾸준히 대회를 경험한 만큼 감동도 크다. 서울대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겠다는 욕심이 컸다. 나이는 먹어도 열정은 그대로다."

우 씨에게 전국체전은 어떤 의미일까. 스스로를 향한 자부심이다. '유미회관'도 조금씩 내부 리모델링을 했을 뿐, 거의 한 곳에서 운영했다. "오랫동안 자리 지키고 한 우물을 판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출전을 포기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우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정말 뿌듯했다. 상을 받겠다는 의도는 없었지만 보람이 컸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환하게 웃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DB 홈 개막전 승리... '김종규+윤호영' 트윈 타워의 힘

KCC전 19점·14리바운드 합작
 이상범 감독 "제공권 좋아졌다"



원주 DB가 홈 개막전을 승리하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쉬웠다.

DB는 6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전주 KCC와의 홈경기에서 86-82로 이겼다. 5일 홈 개막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서울 SK를 99-96으로 잡은 KCC는 1승1패를 마크했다.

전체적인 경기는 DB의 우세가 점쳐졌다. 높이에서 DB가 KCC보다 월등하게 좋다. 또한 KCC가 전날 SK전을 연장전까지 치러 체력적으로 버거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경기는 쉽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2쿼터까지 DB와 KCC는 45-47로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3쿼터 초반 DB가 첫 번째 승기를 잡았다. DB는 3쿼터 초반 경기 시작 때 가동했던 윤호영(4점·7리바운드), 김종규(15점·7리바운드) 라인업을 내세워 높이를 다시 강화했다. 이를 통해 KCC를 3쿼터 종료 3분여까지 단 3점으로 묶으면서 18점을 쏟아내 63-50으로 13점차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KCC의 송교창(24점), 유현준(13점), 김국찬(11점)에게 외곽슛을 허용해 승부를 결정짓진 못했다.

4쿼터도 비슷했다. DB는 경기를 앞서나갔지만 승부를 결정지을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는 85-76으로 9점차로 앞섰지만 3점슛을 잇따라 2개 허용했다. 어이없는 실책으로 공격권을 넘겨준 탓이었다. 결국 상대방의 파울 작전으로 얻은 자유투 2개 중 한 개를 허용(13점)이 성공시키면서 한숨을 돌렸다.

DB 이상범 감독은 "수비에서 김종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제공권에서 확실히 다르다. 김종규 효과는 수비에서 누릴 수 있다. 김종규에게 공격적인 높이를 활용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경기



원주 DB가 이적생 김종규(위) 영입 효과를 앞세워 6일 전주 KCC와 홈경기에서 99-96으로 이겼다. 송교창을 상대로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는 김종규. 사진제공 | KBL

에서도 높이가 있으니까 쉬운 득점이 나오고, 수비에서도 제공권에서 앞섰다. 특히 오픈스 리바운드를 상대에게 많이 내주지 않았다. 그게 승리 원동력이다. 어수선했는데 3쿼터 김태술과 윤호영이 함께 뛰니

안정감이 생겼다. 그래서 첫 경기 어렵게 이겼다"고 승인을 분석했다. 이어 "아직 수비가 완벽하지 않다. 경기를 치르면서 더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DB) 오누아쿠 경기력 '글썽' 자유투는 '다음 기회에'



원주 DB는 6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전주 KCC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홈 개막전을 가졌다. DB는 좋은 전력을 꾸려 우승 후보로 지목받았지만 부상 여파로 시즌 초반 풀 전력 가동은 힘들다.

자유계약선수(FA)로 선발한 김종규는 허벅지 근육이 좋지 않아 출전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수도 개막을 목전에 두고 교체했다. 일라이저 토마스가 부상으로 KBL리그 데뷔전도 치르지 못하고 떠났다. 급하게 치나누 오누아쿠(6점·9리바운드)를 선발했다. 오누아쿠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도 기대주로 꼽혔지만 주로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활동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자유투. 그는 농구화화로 유명한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가 자유투를 던졌던 것처럼 두 손으로 볼을 잡아 자유투를 던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DB 이상범 감독은 경기 시작 전 오누아쿠에 관해 "자신은 몸이 70% 정도라는데 코칭스태프가 볼 때는 20% 정도다. NBA 서머리그를 뒀 이후 약 두 달여를 쉬었다. 서서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격보다 수비가 좋다. 운동 능력이 괜찮아 볼로킹이 좋다. 꾸준히 출전 기회를 주며 몸을 끌어올리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뒤 이 감독은 "오늘 오누아쿠의 자유투를 보러 경기장에 온 팬도 있을 것 같다. 훈련 때 보니 성공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며 웃었다.

이 감독의 말 그대로였다. 실제 경기에서 그는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볼로킹과 텅슛을 선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으로는 의문점을 남겼다. 실수를 남발했다.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뺏기는 장면이 2차례 나왔다. 템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동료가 패스한 볼을 못 잡기도 했다. 기대를 모은 자유투는 던질 기회조차 없었다. 경기 종료 50.8초를 남기로 결정적인 미들레인지 슛을 넣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쉬웠다. 원주 | 최용석 기자